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8, No.5 (June 2008) pp.1-12

복식사 분야의 학예사 제도 현황과 교육방안

홍 나 영[+] · 송 미 경* · 최 은 수** · 최 지 희*** · 이 유 안****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과정****

The Curator System in the Field of the History of Costume and a Plan for Curator Education

Na Young Hong[+] · Mi Kyung Song* ·
Eun-Soo Choi** · Jihee Choi*** · Yuan Yi****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Curator a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urator at Seoul Museum of History, Doctoral Course,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8. 5. 16 투고)

ABSTRACT

Although the curator system of South Korea officially started in 2001, it has not taken root yet. Because most active curators do not have a certificate, concerned scholars are making efforts to complement and establish the curator system. Although there are currently numerous museums and art galleries that own a number of costumes and textiles in Korea, the number of curators who majored in the history of costume is very low. Despite the growing importance and the increase in costume-related exhibition than any other fields, this shortage of qualified curators resulted in the lack of specialty for the management and exhibition of past costumes.

To solve this problem, there needs to be more hire for curators, in proportion to the possession and exhibition of costumes, who major in the history of costume. The history of costume must also be part of the curator test and be required even for the internship. And there must be education for curators who currently deal with costumes without having majored in the study of costume, history of costume students who want to become a costume-related curator in the future, and the general public. The contents for education must include the knowledge of artifacts, theories to enhance the management capacity, and practice in the museum.

Key words: curator(학예사), history of costume(복식사), clothing(의류), museum(박물관), education(교육)

Corresponding author: Na Young Hong, E-mail: nyhong@ewha.ac.kr

Ⅰ. 서론

'큐레이터(curator)'라는 영문 이름으로 더 친숙한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소장품의 보존관리와 전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담당하는 연구 인력을 말한다. 문화기관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상징하는 대표성과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 특성상 전문직의 하나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학예사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1년도부터로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직 제도가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학예직 제도의 도입여부와 관계없이 박물관에서 실질적으로 학예직을 수행하면서 근무하는 전공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역사학과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등을 전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류학을 전공한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물론 박물관의 유물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고 전 분야의 전공자를 모두 채용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섬유류를 소재로 한 복식 유물이 비중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섬유와 복식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진 못한 인력이 복식류를 담당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섬유류는 도토(陶土), 옥석(玉石) 등의 소재와는 달리 온습도에 매우 민감하여 손상되기 쉽다. 또한 큰 면적을 차지하는 복식류는 대부분 접어서 관리하고, 유물의 특성상 마네킹에 입혀서 연출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따라서 그 형태와 소재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서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착장법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박물관에는 복식유물이 적지 않으며 근래에는 그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예사제도와 문화재 관련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식전공자의 채용현황과 각 박물관의 복식유물소장 현황과 복식관련 업무의 내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재 관련 기관에서 복식 관련 업무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기관에서 복식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예사 관련 규정과 그동안의 시행과정 현황에 대한 관련 보고서와 선행연구,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 관련기관 현황 조사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채용공고 내용을 분석,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별도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채용 후 공고문을 삭제하였을 경우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조사의 목적이 정확한 채용 횟수를 산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채용 현황을 알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식유물의 소장 비율은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복식유물의 수량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유물의 재질별로 의복류는 '피모지직' 또는 '섬유류', 금속장신구는 '금속'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복식유물의 비중은 대략의 통계를 따랐다.

Ⅱ. 학예사 제도 및 문화재 관련기관 현황

1. 학예사 제도

1) 학예사의 개념

학예사는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하는 국가 자격제도를 통하여 배출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이라 한다)[1]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정의를 근거로 하는 학예사는 박물관의 정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박물관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학예사 자격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박

물관· 미술관의 전문 인력 국가자격제도이며 제도 시작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04년 1월 1일부터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의무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박물관 · 미술관 관련분야 전공자로 경력인정대상 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의 정도에 따라 가늠되어진다.[2] 학예사 자격제도의 내용은 학예사 자격증 발급과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주요내용

학예사 자격증 제도는 1·2·3급 정학예사와 준학예사 자격증으로 대별된다. 정학예사 자격증은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이수하면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준학예사 자격증은 학사학위 이하의 학력을 소지한 응시자가 매년 12월에 시행하고 있는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학력에 따라 요구되는 경력을 쌓아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 인정은 자격시험 합격 시기와 전후 관계 없이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경력을 쌓으면 3급 정학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예사 자격증 신청자가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한 기관의 폭을 넓히고자 시행하고 있는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가기준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은 모두 포함되며, 등록 사립·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우는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인가하고 있다.[3]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박물관·미술관 487관(박물관 399관, 미술관 88관) 중에서 경력 인정 대상 기관은 332개로 국립박물관·미술관이 31개, 공립 125개, 사립 및 대학 박물관이 176개이다.

현재까지 학예사 자격증 발급 현황을 〈표 1〉에서 살펴보면, 3급 정학예사는 1,430명이 발급받았다. 또한 준학예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527명으로 매년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준학예사 자격증 발급은 200명에 이르고 있다.[4]

(2)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절차

① 관련 규정

학예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2004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중 학예사제도 관련 내용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

〈표 1〉 학예사 자격제도 현황

구 분	학예사 자격증 발급현황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현황	
2급 정학예사	89	접수인원	4,010
3급 정학예사	1,430	응시인원	1,897
준 학예사	200	합격자	527
계	1,719		

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학예사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학예사 자격제도 시행

학예사 자격제도는 자격증의 교부, 학예사 운영위원회 운영 및 준학예사 자격시험 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운영

학예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심의 및 경력 인정 대상기관의 인가를 위한 학예사 운영위원회는 1년에 2회 실시를 기본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 기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국립·공립·사립 및 대학박물관장 또는 실장, 박물관 관련분야 학회장 등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 임기는 2년이며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본인 의사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역할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학예사자격증 신청을 희망하는 자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여부를 심의하며, 매년 12월에 실시되는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기본 방향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예사 자격제도 전반에 걸친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다. 준학예사 자격 시험 시행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매년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일 6개월 전에 주요일간지 및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3)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① 정학예사(1·2·3급)의 경우

1급 정학예사 자격증의 취득 요건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7년 상반기 현재까지 1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는 없는 상태이다.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의 취득 요건은 3급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1년 3급 정학예사를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2급 정학예사 발급 해당자가 인정되어 2007년 상반기 현재까지 89명이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의 취득요건을 보면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 또는 준학예사 자격증 취득 후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자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발급된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는 1,430명이었으며, 이중 89명이 2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② 준학예사 자격증의 경우

준학예사 자격증은 자격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실무 경력을 쌓은 경우, 학예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한다. 이에 따르는 심사기준의 주요사항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는 실무경력이 1년이고 전문학사 학위자는 3년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5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준학예사 자격시험은 공통 2과목과 선택 2과목을 응시하여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하며,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다. 자격 시험 과목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공통 2과목 중 박물관학은 필수이며 외국어 1과목 선택(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하여 객관식으로 50문항이 출제된다. 또한 선택2과목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3)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를 필히 고용해야 하는 사립박물관과 달리 공립의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설립 주체가 관을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립 주체인 자치 단체가 운영조례 등을 제정, 등록관에 상응하는 운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예사 고용은 물론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박미법'에 적용받지 않고 있다. 또한 사립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다소 소홀히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국공립은 학예사 자격증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자의적 기준에 의거 학예사를 채용하는 등 국가자격제도 자체를 공공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가 없는 공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은 그 증거라 할 수 있다.[5)]

2. 문화재 관련기관 현황

1) 최근(2001-2007) 문화재 관련기관의 분야별 학예사 채용 현황

본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국·공립 문화재 관련기관의 학예사 채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 국·공립 기관에서는 일반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을 별도로 두어 학예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당수의 학예사 채용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유관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 교육과학기술부, 국세청 등의 기관에서 일부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임용 시 학예사를 별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 기관의 학예사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채용횟수 및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문화재청(2007년 19명, 2006년 18명, 2005년 25명, 2003년 11명, 2002년 7명)이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학예사를 채용해왔고 그 규모도 가장 컸다. 뒤를 이어 국립민속박물관(2007년 3명, 2006년 5명, 2004년 12명), 국립국어원(2007년 7명, 2006년 3명, 2005년 2명, 2001년 2명), 국가기록원(2007년 9명, 2005년 2명, 2004년 2명, 2001년 3명), 국립중앙박물관(2007년 6명, 2006년 10명), 국립국악원(2007년 4명, 2004년 1명), 국립중앙과학관(2007년3명, 2004년 1명 순으로 비정기적으로 학예사를 채용해 왔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2007년 9명, 2006

〈표 2〉 전국 주요 공사립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근무현황[1)]

구분	기관수	자격증 취득 학예사 근무여부	
		유(%)	무(%)
공립 박물관·미술관	33	28(84.85)	5(15.15)
사립 박물관·미술관	101	69(68.32)	32(31.68)
계	134	97(72.39)	37(27.61)

년 7명, 2005년 9명, 2004년 9명, 2003년 1명)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학예사를 채용해 왔다. 그 밖에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서도 매년 혹은 격년으로 학예사를 채용해 왔으나 그 규모는 경기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의 학예사 채용은 매년 초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했을 때 채용공고시기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학예사 채용분야는 고고학, 미술사(미술공예)학, 민속학, 역사학, 보존과학, 학예일반 등 문화재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인원에 있어서는 고고학이 압도적으로 많고 미술사학과 민속학이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복식사는 그 채용인원이 극히 미미하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각 전공분야별 채용인원을 세분화하여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학예일반으로 통합, 채용하는 경향이 많다.

2) 학예사 채용 응시자격요건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중 복식사 전공 인력을 채용하였거나 복식사 관련 전시를 진행한 적이 있는 5개 기관(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 서울특별시)을 선별하여, 채용분야별 응시자격과 시험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박물관 중 복식 관련 상설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이하 단국대학교박물관)의 경우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아래 요건을 응시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 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관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이때 연구경력은 2년 이상을 요하는 것이 보통이나 채용기관이나 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을 요하기도 한다. 시험방법은 1, 2차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은 석·박사학위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 채용예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관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문화재청 및 일부 기관에서도 석·박사학위 이상을 채용할 시 비슷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요구하는 연구경력기간은 채용기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부분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으며 서류전형 후 바로 면접전형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을 분석해 보면 '박미법'에 의한 학예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기관마다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특정분야 채용 시에는 그 분야에서 요구되는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하며, 근래에는 국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영어능통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복식관련 대학박물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인턴, 조교, 단기 연구원 경험자 중에서 추천 후 심사를 하기도 한다.

필기시험은 대개 1차와 2차로 나누어진다. 1차 시험은 문화사 전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문화사나 한국문화사가 주를 이룬다. 간혹 영어를 같이 보기도 한다. 2차 시험은 각 전공분야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여러 과목 중 전공분야과목을 선택하면 되는데 보통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복식사 전공을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지극히 미미하긴 하지만 채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요구되는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채용 시험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공립 기관은 '박미법'에 의한 학예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즉, 학예사 자격증 취득과는 별도로 각 기관별 채용시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복식사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함은 기본이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석·박사학위 이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라 할지라도 관련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을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필기

시험을 치를 경우, 2차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문화사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식사는 민속학이나 미술공예 등의 학문과도 연관이 많은 분야이다. 인접분야의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Ⅲ. 복식사 전공자 채용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문화재 관련기관의 복식사 연구자 채용현황과 각 기관의 복식유물 비중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학예사 제도는 국공립 문화재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 복식을 주제로 한 상설전시관이 있는 주요 박물관은 모두 대학박물관이며, 복식사 관련 특별전시 개최 및 연구 성과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조사대상은 복식사 전공자 채용기관 및 최근 10년간 복식관련 특별전을 1회 이상 개최한 국·공립박물관, 복식유물이 20%이상 되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박물관으로 선정,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단국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국·공립기관의 학예사제도와 대학박물관의 학예직 개념 및 채용과정의 차이점은 각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복식사 연구자 채용현황

주요 문화재 관련기관의 학예직 현황 및 복식사전공자 채용현황은 〈표 3〉과 같다. 학예직의 채용형태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일정기간을 약정한 계약직,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별정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공립기관에서 '학예사'라고 부를 때는 정규직을 말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정규직과 계약직, 별정직을 모두 지칭한다. 사립대학교 박물관은 대학별 인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소속 학예직의 인사상 구분에도 학교별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교는 대부분 연봉제이므로 국·공립기관의 기준을 따른다면 계약직이지만, 각 대학에서는 정규직에 해당한다. 이처럼 각 기관별로 인사형태가 상이하므로 본 조사에는 박물관에서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은 모두 '학예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국·공립기관의 학예직 채용 주체는 각 박물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소속 상위기관이 채용과정을 전담하고 박물관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채용과정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다. 문화재청 소속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시 소속인 서울역사박물관, 경기도 소속인 경기도박물관이 앞의 사례이다. 그러나 경기도박물관은 2008년 3년 1일자로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됨에 따라 4월 말에 복식담당 학예사 1명을 2년 계약직으로 공고하여 채용하였다. 2008년부터 복식박물관으로 특화예정인 국립대구박물관의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복식사 연구자를 채용한 후 대구박물관 전담 근무로 발령을 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복식유물도 대구박물관으로 연계 또는 이관될 예정이라고 한다. 전담근무는 국립중앙박물관 및 대부분의 지방국립박물관 학예직이 순환근무를 하는 것과는 달리 예외의 경우이므로 복식유물의 조사대상을 어느 곳으로 하느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복식사 전공 학예직의 근무처를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단국대학교박물관에서 복식유물 보존처리를 전담하는 학예직 각 1명은 복식사 관련 학예직 정원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국·공립기관에서 국립대구박물관은 학예직 전체 현원 4명 중 1명, 국립민속박물관은 50명 중 2명, 서울역사박물관은 35명 중 1명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13명 중 복식사 전공자가 없다. 대학박물관에서 단국대학교박물관은 4명 중 1명,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7명 중 1명이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은 2명 중에서 복식사 전공자가 없다.

대학박물관의 채용경로를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인턴, 조교, 단기연구원 경험자 중에서 추천 후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자격은 단국대학교박물관에서는 복식사관련 박사과정 이상이며, 공고-서류접수-개인면접-합격공지-채용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표 3〉 주요 문화재 관련기관의 학예직 현황 및 복식사전공자 채용현황

박물관명	학 예 직		채용경로
	전체현원	복식사 전공자	
국립고궁박물관	13명	-	문화재청에서 공고 채용
국립대구박물관	4명	1명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고 채용
국립민속박물관	50명	2명	자체 공고 채용
서울역사박물관	35명	1명	서울시에서 공고 채용
경기문화재단	20명	1명	경기도에서 공고 채용
단국대학교박물관	4명	1명	자체 채용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7명	1명	자체 채용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2명	-	자체 채용

(2008년 4월 현재 기준)

화여자대학교박물관(계약직)은 복식사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이며, 추천-서류접수-심사-합격통보-채용 등의 과정을 따랐다.

2. 복식유물 소장현황 및 관련업무

각 박물관의 최근 10년 이내 복식관련 특별전 및 복식유물 소장현황, 복식사 전공자의 복식관련업무의 비중은 〈표 4〉와 같다.

복식관련 특별전은 국·공립기관 중에서 국립민속박물관이 7회로 가장 많고, 국립고궁박물관이 2회, 국립대구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각 1회이다. 국립대구박물관과 연계 가능한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의 국립박물관(대구박물관 포함)에서 개최한 횟수는 총3회이다. 대학박물관 중에는 단국대박물관이 13회로 가장 많으며, 숙명여대박물관이 7회, 이화여대박물관이 6회이다. 이러한 특별전에는 전시개최와 함께 특별전 책자 발간도 함께 이루어지며, 본 장에서는 특별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복식유물도서 발간, 복식을 주요 콘텐츠로 한 교육, 의생활 조사 등도 복식사 관련 주요업무이다.

전체유물대비 복식유물의 비중은 단국대학교박물관이 35%내외,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이 30%내외,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이 20%이상, 국립민속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이 10%내외, 국립고궁박물관이 8%이상, 서울역사박물관이 5%내외, 국립대구박물관이 1%이상이다. 즉, 기관별 비중상으로는 대학박물관이 높다. 그러나 기관별로 소장유물의 수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복식유물의 비중과 수량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는 비중은 10%이지만 수량으로는 8,000여점이며,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는 비중은 20%이상이지만 수량으로는 5,000여점이다.

대학박물관에서는 복식유물의 비중이 높고 상설전시가 있는 만큼 복식사전공 학예직의 복식관련 업무도 70% 이상이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복식박물관으로 특화 준비 중이므로 전시 및 교육 등으로 복식업무의 비중이 높다. 복식유물의 비중이 낮은 박물관의 경우에는 소속 과의 업무에 따라 복식 외에 여러 분야의 유물구입, 박물관 교육, 다른 유물을 주제로 한 전시기획 및 책자발간, 유물등록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박물관은 여러 가지 문화를 담고 있으며, 박물관별로 전체 소장유물수량 및 종류, 박물관 운영목적에 편차가 많으므로 한 기관을 잣대로 획일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박물관의 관람객들은 생활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 특히 복식유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예로 서울역사박물관의 2007년 상설전시실 관람객조사에서는 관람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을 복식-체험전시-서울지도(地圖)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6] 생활문화의 대표적인 부분은 의식주(衣食住)인데, 식문화는 실물전시가 어렵고, 주생활의 대표적인 유물인 가구는 생활문화보다는 '공예품'으로서 관람객에게 인식되는 정도가 크다. 반면 복식류는 사람들이 직접 입고 만들었던 것으로 친숙한 느낌이 있어서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듯하다. 따라서 서울역사

〈표 4〉 박물관별 복식관련 전시 및 유물비중, 학예직 전공 현황

박물관명	복식관련 특별전현황	전체 유물수량	복식유물비중 (전체유물대비)	복식사 학예직의 복식관련 업무비중
국립고궁박물관	2회	36,000여점	8%이상	-
국립대구박물관	1회	25,000여점	1%이상	80%내외
국립민속박물관	7회	82,000여점	10%내외	30%이상
서울역사박물관	1회	30,000여점	5%내외	10%이상
경기도박물관	4회	13,000여점	10%내외	95%이상
단대박물관	13회	30,000여점	35%내외	98%이상
이대박물관	6회	25,000여점	20%이상	70%이상
숙대박물관	7회	8,000여점	30%내외	-

(2008년 4월 현재 기준)

박물관의 경우 전체소장유물 대비 복식유물은 5%내외이나, 상설전시실 전시유물로는 22%이상(총 770여점 중 170여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식은 관람객들의 호응도 및 전시효과가 높은 유물의 하나이며, 특별전의 경우 복식만을 주제로 하지 않더라도 전통공예, 여성문화, 민속문화, 초상화 및 고분벽화 등의 모든 생활문화관련 전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유물등록 및 민속조사 등에 있어서도 관련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Ⅳ. 복식사 분야의 문화재 관련 업무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방안

1. 제도개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한국의 대다수 박물관들은 종합박물관으로서 소장품 가운데 복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식 전공자들의 채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공자 채용 못지않게 복식 문화재 관련 업무를 위한 박물관 내 상황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복식유물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복식유물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유물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이후의 유물이다. 역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박물관 내부의 인식으로 보면, 금속유물이나 도자유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박물관내 전공자의 비율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복식유물은 유기물로 관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아 보존·수장 환경과 전시환경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식 보존처리와 수장을 위한 장비와 공간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복식 유물은 다른 유물과 비교하면 보존처리와 수장 모두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 복식유물 수장에 항온항습과 조도 등도 필수사항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이러한 박물관 내 복식 문화재 관련 업무가 개선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복식유물을 담당할 인적 자원인 복식전문 학예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복식 전문 박물관인 단국대학교 박물관을 제외한, 복식을 소장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이나 대학박물관 기타 사립박물관에서의 복식 전공 학예사의 소속비율은 유물 소장 비율에 비해 매우 미미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예사 자격시험과 선택과목, 전공명시 등에 대한 의견과 교육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준학예사 자격시험 관련 선택과목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현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가운데 제2 선택과목은 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전시기획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주관식으로 출제된다. 제 2 선택과목인 12 과목은 박물관 관련학과에서는 전공필수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하지만 의류학(복식사) 전공일 경우에는 이들 제 2

선택 과목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곤란함이 발생한다. 특히 준학예사 자격증은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 자격증이 있을 때 사립박물관 입사 때 유리하다. 정학예사 2·3급은 박물관에 입사한 후 근무경력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선후로 따지면 준학예사 자격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준학예사 제2 선택과목에서 복식사도 선택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복식관련학회에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여야 될 것 이다.

2) 정학예사 자격의 전공 명시

준학예사와 정학예사의 전공에서 "'관련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라 함은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인류학·서지학·자연사·과학사·박물관학·역사학 및 보존과학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분야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류학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관련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분야에 먼저 규정되어야 준학예사 시험과목에도 의류학이 명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류학은 학예사 자격시험과는 무관하게 국·공립 박물관에서 필요에 따라 학예사를 채용할 때 구체적으로 학과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고가 된다.

3) 박물관·미술관 관련학과에 의류학 전공을 명시

위에서 언급한 준학예사·정학예사 자격 이외에도 각 박물관 인턴제도 등에서도 모집 자격에 의류학은 제외되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은 박물관·미술관 법에 관련학과 자격에 의류학(복식사) 전공이 명시되는 것이다.

2. 교육방안

Ⅲ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식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많지만, 복식전공 학예사의 채용현황은 미미하다. 물론 이는 박물관의 성격상 종합박물관과 특수(전문) 박물관의 차이에서도 기인할 수 있다. 박물관학 관련 전공이라 하더라도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한 내용과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타 전공 분야보다 박물관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박물관의 인턴쉽이다.

현재 각 박물관은 인턴제도가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인턴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총 40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지원 자격은 박물관 관련학과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업무는 전시·문화 교육·홍보이며, 1년에 2번 모집하여, 연수과정 후 연수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때도 박물관·미술관 관련 법규에는 의류학과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박물관 협의회에서도 박물관·미술관 인턴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하는 것은 박물관 관련 학부나 대학원의 교과목이다. 현재 학부와 대학원에서 박물관 관련학과(전공)가 개설된 학교는 경희대, 명지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균관대학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여대의 경우는 학부에서 박물관학과 의류학과가 연계전공으로서 한국복식사·서양복식사 과목이 전공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 외 용인대학교 문화재 보존과학과에서 직물보존처리를 위한 의류직물학이 설강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에는 박물관복식 전시기획특론이 개설되어있다. 학교와 학과 사정상 커리큘럼이 다를 수 있으나, 박물관학과 보존과학 전공의 학과에서는 한국미술사가 전공필수이듯이, 최소 단위로 한국복식사 또는 직물사와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과목들이 개설되기 힘든 상황에서 대안으로 '복식전문 큐레이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복식유물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복식을 전공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 그리고 현재 현장에서 복식유물을 취급하지만, 복식을 전공하지 않아 섬유와 복식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의 학예사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더불어 실무를 체험할 수 있게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대학박물관과 연계하여 강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별도 시험을 거쳐 한국복식학회 이름으로 자격증이 수여하는 프로

그램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부에 등록하여 문화부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민속박물관 등에서는 현직 박물관 학예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도 복식사와 복식 보존처리 과목이 추가되어 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한국복식학회에서 개설하는 특강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사립박물관 및 발굴기관 등의 유물취급 및 관리 담당자와 문화재청 등록 보수기술업체 문화재 보존담당자를 대상으로 유물보존에 관한 기초지식과 관리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7]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박물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과 미술관 학예연구직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민속·문화사 관련 박물관 학예연구직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각급 박물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관련 전문 인력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연수과정으로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으로 학예연구직 교육을 통한 관리 및 실무 기획력 향상을 위해, 5일 35시간 1기 유물관리(유물관리와 보존과학), 2기 전시와 교육(전시기획과 박물관 교육기획)[8]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유초등교원연수 프로그램에도 기초과목으로 복식사 관련 분야가 포함되도록 복식관련 학회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 외도 각 대학원의 한국복식사 전공 교과과정에서 박물관학 관련 과목을 개설한 학교들이 다수 있다. 그 과목의 개설 시에 여러 학교가 연합하여 설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강의 또한 현직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예사들에게 의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을 좀 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V. 결론 및 요약

이상에서 복식사 분야의 학예사 제도 현황과 교육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예사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국공립기관에서도 자격증 취득자 채용을 자격조건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국가자격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다. 아직 자격제도의 정착이 되지 않아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게다가, 박물관 소장 복식 유물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 자격시험에 복식사 분야의 과목이 들어있지 않다.

최근 문화재 관련기관의 학예사 채용현황을 보면 국공립기관에서는 일반 행정직이 아닌 연구직을 별도로 두어 학예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2004년을 기점으로 채용회수와 규모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용분야는 고고학이 가장 많고 미술사학과 민속학이 그 뒤를 이었다. 복식사는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현재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를 채용하는 응시자격요건을 보면, 현재까지 학예연구사의 자격증을 요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제교류의 활성화에 따라 외국어 능력이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 혹은 복식유물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자를 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인턴, 조교, 단기 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박물관의 업무는 복식전공자라 하더라도 복식관련 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의 유물구입, 박물관 교육, 전시기획, 책자발간 유물 등록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 분야에 대한 관심과 관련지식도 요청된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복식사 분야의 관련 업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응시할 수 있는 준학예사 자격시험의 선택과목과 석박사 소지자가 경력인정 대상기관에서 소정의 경력을 이수 후 지원할 수 있는 정학예사의 자격 전공명시에 복식사가 채택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회차원에서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박물관 미술관법에 관련학과 자격에 의류학(복식사) 전공이 명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인턴 모집자격에서도 의류학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류학 전공자라 하더라도 학부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식만을 가지고 박물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은 실무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한국복식사 전공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과목을 개설하여 공동 운영하거나, 박물관과의 연계 하에 인턴 쉽 등을 활용하는 학회차원의 공동 노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현재 박물관에서 복식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복식사를 전공하지 않은 인력이나 학예직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의류학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업무와 이론을 겸비한 교육을 학회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시하는 학예사 연수 프로그램에도 복식사 및 복식보존처리 분야의 강의가 포함되도록 기존의 프로그램과 타 분야와의 협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복식분야의 학예사 제도의 정착과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는 한국복식의 연구에는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 예술, 패션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성격이 박물관 미술관의 출현할 것이며, 현대의상 및 미술의상 박물관과 같은 새로운 복식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복식사분야의 학예사제도의 정착과 체계화된 교육과정은 새로운 시대를 담당할 패션 큐레이터 제도의 구축과 인력양성에도 기초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유관기관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 885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20676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 3. 6 문화관광부령 1호) 사이트 참고. www.moleg.go.kr.
2) 윤태석 (2007).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현황을 통한 문제점 연구. **조형교육**, 제30집, p. 214.
3) 2006. 12. 31.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정책과 자료 분석 참고.
4) 윤태석 (2007).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운영 현황을 통한 문제점 연구. **조형교육**, 제30집, pp. 216-217.
5) 윤태석. 위의 글, pp. 219-220.
6) 서울역사박물관 (2007). **서울역사박물관 관람객 조사** 보고서, p. 59.
7)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8)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참조.